

2026년 7월, 출범 확정 제물포구·영종구 서구·검단구		보 도 자 료		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
배포일자		2024년 4월 23일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감염병관리과	담당자	• 감염병 예방담당 • 담당자	박은영 ☎ 440-7841 임민경 ☎ 440-7845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선제적·능동적 말라리아 퇴치 전략 추진

- 2030년 말라리아 발생 퇴치를 위해 인천시 총력을 기울여 -

인천광역시는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질병관리청 감염병 발생 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2023년 말라리아 발생수가 125명으로 전년 대비 98.4% 증가했다. 이는 폭염, 폭우 등 기후 위기가 모기의 생식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며 모기 매개로 인한 질병 위협 증가,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야외 활동 인구 증가 등을 원인으로 추정된다.

이에 인천시는 지난 3월 말라리아 재퇴치 계획을 수립해 ▲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 ▲매개모기 방제 강화 ▲조기진단 강화 및 감시체계 구축 ▲말라리아 퇴치기반 구축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단위과제로 나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또한 말라리아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말라리아 진단 및 진료 안내서를 의료기관에 배부하고, 기존의 관행적 방제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제로 전환한다. 일일모기감시장비를 활용한 방역전문가 컨설팅을

도입하고, 방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체계적인 방제 사업을 새롭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.

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질병을 매개하는 암컷 모기만을 채집하고, 채집된 개체 수를 실시간 자동 계수해 자료를 전송하는 신개념 정보통신(IT)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다.

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말라리아의 주 발생지인 강화군, 서구 외에도 도심지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”며 “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후 발열, 오한 등의 증상이 있다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관련사진(4.19.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회의)



